

보성군수, 현직 도전·민주당 후보 간 경선이 곧 본선

무소속 후보 없어...민주당 경선에서 판가름 현직 김 군수 저지 위해 의원·당직자 등 가세

6·1지방선거 전남 보성군수 선거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직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후보군에는 김철우(58) 보성군수, 임영수(69) 전남도의원, 선형수(60) 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장, 변재면(68)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빙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압도적인 인지도가 강점이다.

지난 2018년부터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 성장의 큰 기틀을 다지며 군민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군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괄목할 만한 군정 성과를 거뒀다. 재임 기간 4등급이었던 군 청렴도를 2등급으로 끌어올려 청렴한 보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했다. 군민을 위한 마스크 조직단을 구성하고, 보성군 특산물 캐릭터인 'BS삼총사'도 만들어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했다. 김 군수는 특히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군수에 맞설 대항마로는 임영수 전남도의원이 거론된다.

임 의원은 보성군의회 4선 의원(3~6대)과 전남도의회 2선 의원(10~11대) 등 6선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전시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광주상고 총동문회 보성지역회장, 보성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보성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인맥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폭 넓은 정치 경험과 관록이 장점인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출향기념회에서 신발 끈을 다시 조이는 초심의 자세로 내려가겠다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민주당 탈당 전력이 경선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형수 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장도 선거전에 합류했다.

보성 출신인 선 전 본부장은 고향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알려졌다.

보성 군민 대표로 도민체전 선수와 감독으로 활동하며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를 기획해 군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선 전 본부장은 지난 13년 간 군민과 학생을 위해 지역 미술교사, 작가와 함께 미술동아리도 만들어 전시와 문화공동체 구성에 앞장선 온 결과, 영광스러운 보성군민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보성군 어린이날, 학생의 날, 통일축제를 함께 만들어 보성군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헌신했다.

선 전 본부장은 민주당 전남도당 조직위원장, 17대 대선 보성군 선대본부장,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19대 대선 전남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선대본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보성군수

			
김철우	임영수	변재면	선형수
보성군수	전남도의원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빙교수	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변재면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빙교수는 보성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한 농업전문가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변 전 교수는 가톨릭상지대 교수, 재경보성군향우회 부회장, 재경보성중중동 문화 회장, 한국문화복지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농업을 전공하고 다양한 농촌사회활동 경력을 보유한 현장 농업전문가로 낙후된 보성군의 농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성=김덕순 기자

화순군수, 현직 불출마 민주당 공천 경쟁 치열

현 군수 불출마로 민주당 인사 대거 출마 후보 6명·민주당 본선 티켓 당선 보증수표

6·1지방선거 전남 화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군수의 3선 불출마로 그를 대체할 당내 인사들이 후보군에 여러 거론되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전남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화순에서도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보증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자 구도로 펼쳐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구충곤 후보는 70.31%를 얻어 상대 후보(인호경·29.68%)를 더블스코어가 넘는 득표 차로 꺾고 화순군수에 당선됐다.

이번에 민주당 소속 출마 후보군으로는 구복규(67)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행주(58) 전남도의원, 강순팔(60) 화순군의회, 윤영민(61) 화순군의회 부의장, 조재운(62) 전 나주부시장, 민병홍(6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등이 거론된다.

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하고,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부의장은 화순군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35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요 요직을 거치며 역량을 키웠다. 도의회 9대, 11대 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구 부의장은 농수산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해 말 3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일찌감치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시작했다. 최근 공정과 혁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화순을 기치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화순을 만들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문행주 전남도의원도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과

거 화순군의회 5~6대 의원을 지낸 뒤 도의회 10대 의원으로 입성해 11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전남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조례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추진건의안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문 의원은 전국농민회 전남도연맹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 민주당 통 화순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순팔 화순군의회원은 지역 내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입문해 내리 4선을 지내는 등 오랜 기초의원 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거세지자 출향기념회를 취소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신 SNS를 통해 지난 16년 간 의정활동이 담긴 책을 소개하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다.

'젊은 피'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정책에 방점을 두고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선거전에 돌입한 윤 부의장은 화순 인구 10만명의 새도시 창조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인제가 없는 곳에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지방 소멸의 가속도를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화순 역사를 조명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팜·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새 옷을 입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재운 전 나주부시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에 강한 인물이 다. 지난 1979년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전남도 기업도시 담당관, 의회사무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기업조정실 예산관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40년 간 공직생활 경험을 발판 삼아 군수 선거전에 임한다는 각오다. 민병홍 전 전남도의회원은 교육 전문가다. 전남도 교육위원회 재임 기간 동안 도

덕성과 행정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정치 경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화순군수

					
강순팔	구복규	문행주	민병홍	윤영민	조재운
화순군의회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화순군의회 부의장	전 나주부시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다. 군수 출마를 위해 올해 초 화순읍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